

# “목포시 대표 책임감으로 투혼 발휘…좋은 성적으로 보답”

## 축구·하키·육상 등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등 체계적 훈련에 매진

목포시는 최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재계약 선수와 신규 영입 선수를 환영하고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하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을 개최했다.

입단식에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축구(33명), 하키(20명), 육상(8명), 복싱(3명) 선수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선수들은 “목포시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매 훈련에 최선을 다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며 한목소리로 결의를 다졌다.

입단식 이후에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선수 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인 폭력·성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팀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육상팀 조상현 선수는 400m 허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하

킥팀과 복싱팀도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해도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K3리그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며, 하키·육상·복싱 선수단 역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를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현미 목포시 스포츠산업과장은 “전국체육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은 목포시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시는 최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재계약 선수와 신규 영입 선수를 환영하고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하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을 개최했다.

## 박수관 (주)YC TEC 회장, 여수에 1억 상당 사랑의 쌀 기탁

###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쌀 3030포 전달 ‘이웃사랑 실천’

설 명절을 맞아 ‘기부천사’로 알려진 박수관 (주)YC TEC 회장이 고향 여수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사랑의 쌀 3030포를 기탁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수관 회장, 신라대학교 이희태 부총장을 비롯해 여수지역의 대표 봉사단체인 ‘우리이대토회’ 여운의 회장과 사회복지시설 대표 관계자, 재부산여수향위회 회원 등 100여명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기탁된 쌀은 박수관 회장의 이웃사랑과 기부의 진심을 담아 사회복지 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홀몸 어르신,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기부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를 위한 박수관 회장의 꾸준한 나눔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기부문화가 확산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여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여수와 부산에서 40년 이상 장학금 지원과 수술비 및 치료



박수관 (주)YC TEC 회장이 고향 여수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사랑의 쌀 3030포를 기탁했다.

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후원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여수세계삼박람회조직위원회장으로서 삼박람회 성

공적인 개척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복지기관 10곳에 명절음식키트 1200인분을 전달했다.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설맞이 사랑나눔

### 지역 복지기관에 명절음식키트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복지기관 10곳에 명절음식키트 1200인분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키트는 소고기와 떡국떡, 만두 등 설 명절에 필요한 식재료 4종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안도걸·조인철 국회의원,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과 복지기관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지 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광주전남식품보호제판매협동조합, 광주전남가공공업협동조합, 광

주수시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임경준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떠난듯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매년 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명절나눔과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9일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국힘 전남도당, 설 앞두고 노인복지관 민생 봉사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민생 현안을 살피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9일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복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송현중 청년위원장, 이오

숙 여성위원장 등 도당 주요 당직자와 당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점심 배식에 나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맘 흘리며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생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을 계기로 보여주거시 행보가 아닌, 생활과 맞닿은 정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장흥 탐마루 축산, 지역 사랑 실천

### 600만원 상당 식료품 기탁

이희석 장흥 탐마루 축산 대표가 장흥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기탁식에는 이희석 대표와 김성 군수가

직접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물품은 장흥염마순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돼, 추운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석 대표는 “가능하다면 매년 기탁을 이어가고 싶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송호림 재경향우회 회장이 지난해 고흥군 1호 고예 기부자에 이어 올해도 2000만원을 쾌척하며 고향 사랑에 앞장섰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도권 항우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항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흥군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는 탐마루 축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기탁된 물품은 푸드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알맞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 동신대 학군단, 우수 학군단 표창 수상

동신대학교 학군단(단장 유세화 중령)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최정예 장교 육성에 매진해 온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돼 최근 학생군사학교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세화 학군단장은 “이번 선정은 후보생들의 열정과 교직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아우러진 값진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질 좋은 인성의 유능한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신대 학군단은 1989년 창단 이후 학군 29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개 기수에 걸쳐 795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사랑의 쌀 나누기'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최근 광주 서구 유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석한 박종관 유덕동 새마을협의회장과 배창숙 서구새마을회장이 독거노인 세대에 쌀과 계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